

한국 대학생이 생각하는 한국과 미국의 암묵적 창의성에 대한 비교 연구

성 은 현

호서대학교

류 형 선

성균관대학교

하 주 현

건양대학교

이 정 규

한국교육개발원

한 순 미

가톨릭대학교

한 윤 영

숙명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창의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선행연구로서 한국 대학생의 한국과 미국에 대한 암묵적 창의성을 조사하였다. 연구방법은 한국의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으로 다중 응답하게 하였고, 빈도 분석하여 해석하였다.

그 결과로 첫째, 한국의 대학생들은 한국의 창의성 특성에 대하여 인지적 특성, 인성적 특성, 문화적 특성, 연구개발분야, 예술분야 등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창의성 이론과 비슷한 방식으로 창의성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한국의 경우, 사회문화적 배경과 같은 환경적 특성은 창의적 특성, 비창의적 특성 모두에 비중 있게 차지하였다. 셋째, 미국의 창의성을 개인주의적인 성향에 초점을 두어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한국적 창의성에서는 공동체의식이 창의적 특성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보다는 미국의 문화가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섯째, 한국의 전통문화는 문화의 고유성과 우수성 그리고 현대적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창의적 특성으로 인식되었다. 여섯째, 창의적 인물은 대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술가, 경영자, 통치자, 과학자 순으로 인식되었다. 일곱째, 창의적 인물의 특성에 나타난 양 국가의 창의적 특성 비교에서 한국보다는 미국의 특성이 더 많이 반영되

교신저자: 성은현(ehsung@office.hoseo.ac.kr)

*이 논문은 2006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6-321-B00116).

었으며, 이는 미국문화에 보다 익숙한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비교문화적 창의성 연구에서 동양적 창의성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으며, 특히 전통문화와 전통재창조, 동양적 가치관 등이 서양에는 없는 우수한 문화자원이며 창의성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제기되었다.

주제어: 암묵적 창의성, 한국의 창의성, 미국의 창의성, 비교문화

I. 서 론

창의성은 개념의 추상성과 다양성 때문에 다양하게 정의 내려지고 연구되어져 왔다. 초기의 창의성에 대한 논의는 1950년 Guilford의 APA의 연설을 기점으로 지능과 관련된 개인의 심리적 특징에 초점을 둔 미시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개인의 심리적 특징에 초점을 둔 연구 방법이 창의성의 실체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Sterberg & Lubart, 1999)을 계기로 사회문화적인 배경과의 관계에 주목한 거시적 접근방식으로서의 전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창의성에 대한 연구가 개인의 심리적인 특징과 더불어 개인이 속한 사회 문화적 배경이 고려되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Csikszentmihalyi(1999) 같은 경우 창의성을 단순한 정신과정으로 취급하기보다는 문화적 현상으로서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개인의 특징보다는 사회와 문화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성은현(2006)도 창의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개인과 관련된 자질도 중요하지만 이를 촉진하고 양육하는 개인·사회·문화 환경적 풍토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창의성에 대한 연구과정에서 창의성이 발휘되는 문화권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문화권에 대한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동양인과 서양인의 창의적인지능력과 인성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동양인의 창의성이 서양인보다 저조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성은현, 2004; Amabile, 1996; Csikszentmihalyi, 1999; Feldman, 1999; Kim, 2005; Rudowicz & Yue, 2002; Runco &

Johnson, 2002; Stremikis, 2002). 성은현(2006)은 동서양의 문화를 창의성 차원에서 연구한 문헌들을 대조하여 살펴본 결과, 유교주의와 집단주의로 대표되는 동양문화는 수직적, 지시적, 공동체 강조 등의 특성을 강조하여 순응적이고 인내심을 지닌 성격형성에 영향을 주는 반면에,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로 대표되는 서양문화는 자유, 권리, 개성, 흥미, 융통성 등을 강조하여 개성과 자유추구 등의 성격형성을 추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유교주의와 집단주의의 동양의 문화는 서양의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문화에 비해 창의성을 촉진하지 않는다는 것, 동양인들이 서양인들보다 창의적인 성격이 많이 저조하다는 것, 그리고 동양의 가정과 교육 환경이 서양의 가정과 교육환경에 비해 창의성을 저해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었다.

실제로 많은 동·서양의 창의성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 동양의 창의성은 서양의 창의성보다 발휘되는 개인의 능력과 특징 그리고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낮게 평가받고 있다. Jellen과 Urban(1989)은 창의적 사고-그림 검사(TCT-DP)를 동·서양의 11개 국가의 아동에게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서양 문화권의 아동들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동양 문화권의 아동들보다 더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고 보고하고, 서양의 문화가 동양의 문화보다 더 아동의 창의성을 자극한다고 하였다. Rudowicz와 Yue(2002)는 베이징, 광주, 홍콩, 태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적 성격 특성과 중국인의 성격특성, 서양인의 성격 특성과 관계된 형용사들을 열거한 목록표를 주고 이 형용사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의 성격과 창의적 성격은 유의한 상관이 없거나 있어도 매우 낮은 반면, 창의적 성격과 서양인의 성격은 높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Zha 등(2006)은 개인주의로 대표되는 서양과 집단주의로 대표되는 동양의 창의성에 대한 문화적 비교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그들은 미국과 중국의 박사과정 대학원생 각각 55명과 56명을 대상으로 Williams가 1991년에 개발한 확산적 사고 검사(CAP)와 성취도 검사인 GRE 그리고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적 성향을 검사하기 위하여 I-CT(Triandis, 1994)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대학원생들이 성취도 검사인 GRE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반면에, CAP 점

수는 융통성을 제외하고는 유창성, 독창성, 정교성, 제목의 추상성에서 미국 대학원생들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I-CT 성향 검사에서도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동양의 문화가 기본적 능력과 성취를 강조하는 교육 체계, 사회적 기대 그리고 집단을 강조하여 성취도 점수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에 창의성 점수와 개인주의적인 성향에서 낮게 평가된 것을 말하여준다.

그러나 모든 연구들이 동양인이 창의성에 있어서 저조하다고만은 보이지 않는다. Rudowicz과 Lok 그리고 Kitto(1995), Pornrungrj(1992)은 앞의 연구들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Rudowicz과 Lok 그리고 Kitto(1995)는 홍콩의 아동과 미국의 아동을 대상으로 TTCT 도형검사를 실시해 본 결과 홍콩의 아동이 미국의 아동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하였고, Pornrungrj(1992)는 태국에서 태어난 아동과 미국에서 태어난 태국 아동을 대상으로 TTCT 도형검사를 실시한 결과 태국에서 태어난 아동이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고 하였다.

위의 대조적인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는 동양보다는 서양의 문화가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은현(2006)이 진술한 것처럼 창의성의 개념이 서구화된 개념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창의성 측정도구가 서양에서 개발된 것이 일부 원인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창의성을 연구하는데 있어 동·서양의 사회와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야함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적 창의성과 서양의 창의성을 비교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나 비교에 앞서 전술하였듯이 기존의 창의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서양의 사회문화적 특성이나 한국과 서구의 공통적 특성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먼저 한국인이 생각하는 한국과 서양의 암묵적 창의성에 대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암묵적 창의성은 개개인의 마음속에 내재하는 지적인 구인으로서 형식적이지 않으며 질문과 추론을 통해 발견되거나 또는 행동에 의해 그 모습이 밝혀진다(Sternberg & Lubart, 1995). 따라서 암묵적 창의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인의 공통된 창의성에 대한 인식을 도출하고 명시적 이론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한국

과 서양의 창의성을 비교하기 위한 선행연구로서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과 서양의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지식을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다수의 연구가 자국과 서양의 창의성을 비교할 때 미국을 비교대상으로 연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비교대상을 미국으로 제한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 대학생이 생각하는 한국의 창의적인 특성은 무엇인가?
2. 한국 대학생이 생각하는 한국의 비창의적인 특성은 무엇인가?
3. 한국 대학생이 생각하는 미국의 창의적인 특성은 무엇인가?
4. 한국 대학생이 생각하는 미국의 비창의적인 특성은 무엇인가?
5. 한국의 창의적인 인물은 누구인가?
6. 창의적인 한국인들의 특성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피험자 선정

설문은 수도권과 중부권의 4년제 대학생 46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남학생 130(28%)명 여학생 335(78%)명으로 그중 1학년은 75명(15.1%), 2학년 180명(38.7%), 3학년 118명(25.4%), 4학년은 91명(19.6%), 결측값은 6명(1.3%)이다.

<표 1> 설문응답자 현황

구 분		빈 도	%
성별	남	130	28
	여	335	72
학년	1학년	70	15.1
	2학년	180	38.7
	3학년	118	25.4
	4학년	91	19.6
	결측값	6	1.3
합 계		465	100

2. 설문문항

설문지는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서술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질문으로 다중응답하게 구성되었다. 문항의 내용은 “한국인의 창의적인 면이나 특성”, “한국인의 비창의적 면이나 특성”, “미국인의 창의적인 면이나 특성”, “미국인의 비창의적 면이나 특성”, “한국의 창의적인 인물”, 그들의 “창의적인 특성”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되어있다.

3. 자료정리 방법

설문을 통하여 회수한 진술문은 동일한 내용의 특성들끼리 묶어 범주화하여 구분하였고, 빈도수로 정리하였다. <표 2>를 제외한 모든 <표>에는 빈도수가 전체 1.0%이상 차지하는 것들을 구체적 진술내용과 함께 제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응답 현황

구 분	빈도(%)			
	한국	미국	한국의 창의적인 인물	창의적인 한국인들의 특성
창의적 특성	1,137(34.1)	797(23.9)		
비창의적 특성	1,057(31.7)	346(10.4)	927	1,185
합계	1,934(58.0)	1,403(42.0)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응답자들은 한국의 창의적 특성이나 비창의적 특성에 대해 각각 1,137개의 반응, 1057개의 반응을 하였으나, 미국의 창의적 특성이나 비창의적 특성에 대해서는 각각 797개와 346개의 반응을 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응답대상이 한국의 대학생이어서 미국의 창의성에 대한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힘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2. 한국의 창의적인 특성

한국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창의적인 면이나 특성은 <표 3>과 같다.

한국인의 창의적 특성으로는 IT와 과학 그리고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18.6%)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IT분야와 과학기술분야에서 두드러진 발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연구개발분야 중에서도 IT분야(9.6%)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주로 인터넷의 발달, 핸드폰 기술, 온라인 게임 등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창의력이 요구된다고 보이는 ‘예술 분야’(7.4%)가 있었으며, ‘전통음식 및 음식문화’(7.2%), ‘전통문화 및 전통 재창조’(7.1%), ‘융통성, 응용 및 변환’(6.1%), 신조어 및 풍부한 어휘 표현 등의 ‘언어표현’(5.0%), 협동심과 정을 강조하는 ‘공동체 의식(4.5%)’, 손재주로 대표되는 ‘젓가락문화’(3.3%), ‘정교성’(3.3%) ‘한글’(3.1%), 기발한 아이디어, 잔머리 등의 독창성(2.9%) 순으로 나타났다.

3. 한국의 비창의적 특성

한국의 비창의적 특성은 16개 목록으로 범주화 하여 주요 범주의 구체적인 내용내용은 <표 4>에 제시하였다. 비창의적인 특성으로 기존 질서에 순응하거나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고정관념’(11.7%)과 다수의 의견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향의 ‘몰개성’(11.2%) 그리고 ‘한국적 교육풍토’(10.5%), ‘모방주의’(7.7%), ‘보수주의’(5.9%), ‘형식 및 예절강조’(5.4%)가 전체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도 비창의적 예술, 사회제도, 공동체의식(혈연, 지연, 학연 등), 비평등성, 자기표현의 부자유, 즉흥적(냄비근성), 배타성, 자기주장 등이 한국의 비창의적인 면이나 특성으로 제시되었다.

< 표 3 > 한국의 창의적인 면의 주요 범주와 구체적 진술내용

순위	범주명	구체적 진술 내용	N	%
1	연구개발 (과학, IT, 기술)	정보통신분야 / 인터넷 콘텐츠 개발 및 문화 / 게임, 과학분야, 수리능력, 개발과 연구분야, 반도체 / 첨단분야의 신기술 개발	211	18.6
2	예술분야	문학 / 영상 / 디자인 / 건축 / 미디어 등	84	7.4
3	전통음식/ 음식문화	김치, 된장 등 전통음식, 발효음식, 음식의 개발	82	7.2
4	전통문화/ 전통재창조	고유의 문화 / 국악, 한옥, 장독, 온돌, 문양, 성벽 / 전통의 재창조 / 고전의 현대화,	81	7.1
5	융통/융용/변환	기존의 있는 것들을 응용 / 변화하는 능력	69	6.1
6	언어 표현	언어표현의 다양함 / 신조어 / 많은 형용사 표현	57	5.0
7	공동체의식 (우리)	협동심 강함 / 응집력 강함 / 길거리 응원 (자발적)	52	4.5
8	젓가락문화	손재주가 좋다 / 손가락 사용	38	3.3
9	정교성	작은 것에 여러 가지 기능 부여 / 세심한 작업을 잘함	38	3.3
10	한글	한글 발명/모음과 자음을 합쳐서 쓰는 한글	35	3.1
11	독창성	발상이 특이 / 기발한 아이디어 / 잔머리(피)	33	2.9
12	생활의 지혜	실용적인 물건이 많다 / 생활용품의 아이디어 / 월드컴응원도구	29	2.6
13	실천/추진력	역동적 / 빠른일처리 / 짧은 시간에 급성장	23	2.0
14	개성	자기만의 코디추구 / 개성이 뚜렷함	22	1.9
15	인내/의지/노력	끈기 / 근성/끈질기게 노력한다	19	1.5
16	탈고정관념 (개방성)	퓨전음식, 문화 / 적은 거부감 / 보수적 성향 깨기 위한 노력	16	1.4
17	감수성(정)	감성적임 / 정이 많이 있다 / 함께 해결 / 솔직하다	16	1.4
18	경영방식	돈 되는 일을 잘 찾는다 / 판매나 이익에 있어서 아이디어가 뛰어나다 / 상업적인 면	16	1.4
19	몰두/사색	한 가지 일에 몰두 / 생각을 깊게 한다	11	1.0
20	기타(전체 1.0% 이하의 범주 반응들)	문화의 다양성, 다양한 관심, 지능, 모험심, 자기주장, 형식, 한국적 교육풍토 등	205	18.6
소 계			1,137	100.0

<표 4> 한국의 비창의적 특성의 주요범주와 구체적 진술내용

구분	범주명	구체적 진술 내용	N	%
1	고정관념	새로운 것을 거부 / 틀에 박힌 생각 /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	124	11.7
2	몰개성	개성을 못 살린다 / 유행에 민감하고 무조건 따라하기 / 개성상실	118	11.2
3	한국적 교육풍토	주입식교육 / 틀에 박힌 교육 / 암기식 교육 / 학교교육 및 구조	111	10.5
4	모방주의	모방적 패션 / 표절 / 도용 / 모방을 좋아함	81	7.7
5	보수주의	전통에 얽매임 / 보수적인 생각 / 옛 것에 대한 집착	62	5.9
6	형식/격식/예절 강조	예절 중시 / 체면중시 / 남의 이목 중시 / 도덕 강조	57	5.4
7	비창의적 예술	똑같은 소재의 드라마와 소프트웨어, 디자인 / (많은 제약과 금기 때문)음악, 미술분야 / 문화예술분야	53	5.0
8	사회제도	공공시스템 / 경제, 권력에 이끌림 / 관료적 사회 / 복지정책부족	51	4.8
9	공동체의식 (집단/연고)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임 / 조직문화 / 전체를 중요시	47	4.5
10	비평등성	가부장적 가정환경 / 여성무시 / 수직적 구조 / 계급적인 문제	38	3.6
11	자기표현의 부자유	자신의 의사표현의 부자유 / 표현력의 부족	33	3.1
12	즉흥적/충동적	쉽게 포기 / 냄비근성 / 신중하지 못함	32	3.0
13	연구개발 (과학,IT,기술)	순수과학분야 / 자연친화적인 과학기술력부족 / 수 · 과학분야	20	1.9
14	배타성	우리 것이 아닌 것은 제한적으로 수용 / 우리민족의 배타적 성격 / 나와 다른 것을 수용하지 못함	19	1.8
15	자기주장	고집이 세다 / 자존심이 세다 /	13	1.2
16	기타(전체 1.0% 이하의 범주들)	사대주의, 개인주의, 단순한 건물, 민족 우월주의, 노력부족, 남북분단, 실용화 부족 등	196	18.5
계			1057	100.0

4. 미국의 창의적인 특성

미국의 창의적 특징에 대한 진술은 23개로 분류하여 범주화하였으며, 전체 1.0%를 넘지 않는 범주는 기타 범주에 포함하였다. 주요 범주의 구체적 진술내용은 <표 5>에 제시하였다. 미국의 창의적인 면이나 특성으로는 ‘영화와 예술분야’(13.3%)가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었고, ‘개성 강조’(12.0%), ‘연구개발분야(과학, 항공, 의료, IT 분야)’(11.5%), ‘미국적 교육풍토(9.0%)’, ‘개방성’(6.8%)이 전체의 50%를 넘었으며, 그밖에도 사회제도, 상품화, 독창성, 문화의 다양성, 자기주장, 다양한 관심, 진취성 등이 미국의 창의적인 면이나 특성으로 제시되었다.

5. 미국의 비 창의적인 특성

미국의 비창의적 특징에 대한 진술은 21개로 분류하여 범주화하였으며 전체 1.0%를 넘지 않는 범주는 기타 범주에 포함하였다. <표 6>에 주요 범주의 구체적 진술내용을 제시하였다. 미국중심의 사상의 ‘민족우월주의(14.5%)’, 공동체 의식의 결여에서 오는 ‘개인주의(11.3%)’, 패스트 음식을 상징하는 ‘단순한 음식문화(6.9%)’, 비슷한 패턴을 가진 디자인이나 건물로 표현된 ‘단순(6.1%)’, ‘호전성(4.9%)’, ‘인종차별(6.9%)’ 순으로 빈도수를 나타냈다.

6. 한국의 창의적인 인물

한국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창의적인 인물로는 세종대왕과 백남준이 8.6%, 8.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앙드레김(5.3%), 정주영(4.4%), 장영실(4.4%), 이순신(3.3%), 서태지(3.2%), 이건희(3.2%), 낸시랭(2.2%), 안철수(2.0%), 박찬욱(1.6%), 심형래(1.6%), 박정희(1.4%), 황우석(1.4%), 유재석(1.1%), 김기덕(1.1%), 김영세(1.1%), 노홍철(1.0%) 순이었으며, 이들의 직업군은 예술가(18.8%), CEO(10.6%), 통치자(10%), 과학자(5.8%), 영화감독(4.0%), 개그맨(2.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미국의 창의적 특성의 주요범주와 구체적 진술내용

구분	범주명	구체적 진술 내용	n	%
1	예술분야	영화, 공연, 광고, 문학, 영상, 디자인, 건축 등 예술분야	106	13.3
2	개성	자신의 개성이 뚜렷하다/ 독자적인 개성 중시/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	96	12.0
3	연구개발 (과학, IT, 기술)	우주, 군사, 기술, 과학, 수학, 의료, IT 등의 분야의 연구개발	92	11.5
4	미국적 교육풍토	자유스러운 교육과정, 열린 교육, 다양한 교수방법 등	72	9.0
5	탈고정관념 (개방성)	타인의견 수용/ 다른 것을 잘 이해하고 수용/ 개방적인 태도, 생각	54	6.8
6	사회제도	사회복지제도 발달/ 자본력/ 인재 이용시 실력위주	41	5.1
7	상품화	특허가 많다/ 마케팅/ 브랜드를 잘 만들어낸다/ 상품가치를 찾는다	26	3.3
8	독창성	독특한 발상을 잘한다/ 사고방식이 남다르다	22	2.8
9	문화의 다양성	다양한 인종이 있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 삶의 다양성 인정	22	2.8
10	자기주장	자신의 의사표현이 뚜렷/ 말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22	2.8
11	다양한 관심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봄/ 다양한 관심사가 있다.	21	2.6
12	진취적	세계평화주도/ 미래지향적/ 세계를 통합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19	2.4
13	융통/융용/변환	드럼통으로 악기연주/ 유용하게 만듦/ 응용을 잘함	15	1.9
14	토론문화	대화를 잘 이용함/ 토론을 함	15	1.9
15	경영방식	상품화를 잘한다/ 상업적 기술/ 회사의 경영전략	15	1.9
16	개인주의	개인의 자유를 소중히 여김/ 개인주의적 성향/ 타인과 나를 구분하여 개개인의 감정, 사고중시	14	1.8
17	모험심	개척정신/ 도전정신/ 과감한 시도	13	1.6
18	인내/의지/노력	진지하고 포기하지 않음/	9	1.1
19	비판력	논리적인사고/ 합리적인 자세/ 분석적	8	1.0
20	독자성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 독립심/ 자립심	8	1.0
21	실천/추진력	적극성이 있다/ 생각한 것을 행동한다/ 능동적이다	8	1.0
22	인간관계	다양한 집단이 존재/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이익을 창출/ 일찍 사회성을 기른다	8	1.0
23	기타(전체 1.0% 이하의 범주 반응들)	적응능력, 몰두 및 사색, 민족우월주의, 지능, 다양한 음식문화, 자신감, 미국의 전통강조, 유창성, 리더십, 문화의 수용성, 단순, 호기심, 관찰력, 평등 등	91	11.4
소 계			797	100

<표 6> 미국의 비창의적 특성의 주요범주와 구체적 진술내용

구분	범주명	구체적 진술내용	N	%
1	민족우월주의	미국우월주의 /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자만 / 미국만 생각하는 이기적 사고방식	50	14.5
2	개인주의	개인주의적인 면 / 공동체의식의 부족	39	11.3
3	단순한 음식문화	인스턴트 식품 / 간단한 조리 / 특색 없는 음식	24	6.9
4	단순	디자인이 단순 / 전체적으로 비슷한 패턴	21	6.1
5	연구개발 (과학, IT, 기술)	자연관련분야, 선박, IT, 전자 분야의 기술은 비창의적	19	5.5
6	호전성	공격적 / 무력행사로 인한 권력 장악 / 패권주의	17	4.9
7	인종차별	인종차별(백인우월주의) / 타인종에 대한 무시	17	4.9
8	이기주의	이기주의가 심함 / 이득만을 좇는다 /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14	4.0
9	노력부족	게으르다 / 현실안주 / 뚱뚱함	14	4.0
10	비정교성	세밀하지 꼼꼼하지 못함 / 섬세한 작업을 못함	14	4.0
11	고정관념	틀에 짜여진 것에 약하다 / 고정관념을 깨지 않는다.	9	2.6
12	낮은 언어 표현능력	풍부하지 않은 언어구사능력 / 높은 문맹률	9	2.6
13	비전통성	전통이 없다 / 역사부재 / 전통문화의 부재	7	2.0
14	성문화	성문화 개방, 윤리의식 부재, 파티	7	2.0
15	사회제도	빈부, 학업의 격차 / 지나친 자본주의 / 문화까지 상업주의	7	2.0
16	예의범절 부족	호칭의 사용 / 어른을 공경할 줄 모름	7	2.0
17	즉흥적/ 충동적	감각, 욕구 중시 / 눈앞의 불만 끄려는 성향이 매우 강함	6	1.7
18	모방	헐리웃스타일을 많이 따라한다 / 남의 것을 많이 따라한다.	5	1.4
19	상품화	물질주의 / 인간의 상품화	5	1.4
20	개성	머리스타일 / 피어싱 / 외모	4	1.2
21	기타(전체 1.0% 이하의 범주 반응들)	비판력, 개방성, 문화의 다양성, 적응능력, 몰개성, 배타성, 보수주의, 지식 등	51	14.7
소 계			346	100.0

<표 7> 창의적인 한국인과 직업군

순위	인물명	직업군	N	%
1	세종대왕	통치자	80	8.6
2	백남준	예술가(미술가)	75	8.1
3	앙드레김	예술가(디자이너)	49	5.3
4	정주영	CEO	41	4.4
5	장영실	과학자	41	4.4
6	이순신	장군	31	3.3
7	서태지	예술가(음악가)	30	3.2
8	이건희	CEO	30	3.2
9	넨시랭	예술가(팝아티스트)	20	2.2
10	안철수	과학자겸사업가	19	2.0
11	박찬욱	영화감독	15	1.6
12	심형래	영화감독	15	1.6
13	박정희	통치자	13	1.4
14	황우석	과학자	13	1.4
15	유재석	개그맨	10	1.1
16	김기덕	영화감독	10	1.1
17	김영세	CEO	9	1.0
18	노홍철	개그맨	9	1.0
19	기타		417	45.0
계			927	100.0

7. 창의적인 사람의 특징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진술문은 <표 8>에 제시하였다.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징 진술문의 내용 중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며 기발한 생각을 해내는 사고능력을 내용을 포함하는 ‘독창성(16.9%)’ 범주가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었다. 한편, 웃이나 독특한 행동 및 개성적인 태도를 통해 자신을 표현해 내는 ‘개성(10.4.0%)’ 범주는 ‘독창성’ 범주 다음으로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었다. ‘인내/의지/노력(7.6%)’ 으로 분류된 범주는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를 가지고 있으며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의 진술 내용이 포함되었다. ‘모험심(6.6%)’으로 묶인 범주의 특성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의식이 강하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향에 관

한 것이다. ‘예술분야(6.3%)’, ‘자기주장(5.9%)’, ‘몰두/사색(4.8%)’ 등이 많은 빈도를 나타내는 범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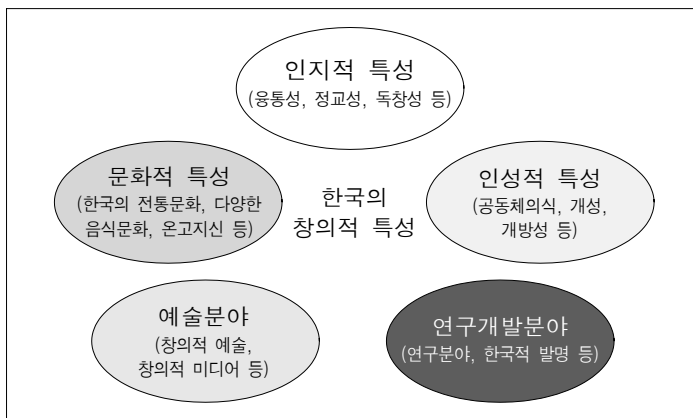
<표 8> 창의적 사람의 특성의 주요범주와 구체적 진술내용

구분	범주명	구체적 진술 내용	N	%
1	독창성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발명 / 독특하다	200	16.9
2	개성	자신만의 색깔이 강하다 / 자기 개성이 강하다	123	10.4
3	인내/의지/노력	끝까지 노력하며 포기하지 않는다 /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음	90	7.6
4	모험심	뛰어난 도전정신 /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	78	6.6
5	예술분야	영화와 드라마 등 다양한 시도 /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예술적으로 보여줌 / 예술적 감각이 뛰어남	75	6.3
6	자기주장	자기 확신이 있다 / 자기만의 소신이 있다.	70	5.9
7	몰두/사색	집중력이 우수 / 한 가지 일에 몰두	57	4.8
8	융통/융용/변환	변화를 주도 / 기존의 것을 다른 형태로 변형 / 재창조	35	3.0
9	관찰력/민감성	일상 속에서 남들이 지나치는 무언가를 관찰해낸다.	33	2.8
10	실천/추진력	고집이 강하고 추진력이 있음 / 소신있게 밀고 나감	33	2.8
11	리더십	리더십이 강하다 / 중심에 있다	27	2.3
12	유머감각	재미있다 / 말재주가 있다 / 예상치 못한 말로 다른 사람을 웃긴다	27	2.3
13	성취력	자기분야의 최고가 되려고 함 / 자기 분야에서 성공	24	2.0
14	진취적	미래를 보는 눈 / 현재에 안주하기보단 미래를 생각함	21	1.8
15	지식	다방면으로 박식 / 독서와 경험 / 해박한 지식	19	1.6
16	다양한 관심	광범위한 흥미 / 다양한 활동에 관심	19	1.6
17	자신감	일에 대한 자신감 / 자신을 믿었을 것 같다	18	1.5
18	지능	총명함 / 두뇌회전이 빠르다	16	1.4
19	호기심	주변사물에 대한 관심 / 질문이 많다	15	1.3
20	생활의 지혜	시내버스요금제도 편히 바꿈 / 불편한 것을 쉽게 바꿈	13	1.1
21	비판력	시사적인 입장을 만화로 비판 / 비판적 사고가 있는 사람	12	1.0
22	기타	높은 언어표현능력, 독자성, 인정, 긍정적사고, 상품화, 적용 / 해결능력, 연구개발, 감수성, 공동체의식, 사회제도, 애국심, 정교성 등	180	15.2
계			1185	100

IV. 결과 해석

1. 한국 대학생이 보는 한국의 창의성

기술된 창의적 특성의 진술문의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첫째, Rodes의 4P(창의적 산출물, 창의적 과정, 창의적 인간, 창의적 환경) 중에서 창의적 과정을 제외한 창의적 산출물, 창의적 인간, 창의적 환경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창의적 인간은 특성에 따라 인지적 특성과 인성적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김혜숙(1992), 송인섭과 김혜숙(1999)의 연구의 분류를 따랐다. 또한 창의적 산출물이 예술분야와 연구개발분야로 두드러지게 구별되므로 [그림 1]과 같이 구별할 수 있다. 따라서 총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지적 특성은 ‘융통성’, ‘정교성’, ‘독창성’, ‘언어표현’ 등으로, 인성적 특성은 ‘실천/추진력’, ‘개성’, ‘개방성’, ‘감수성’, ‘인내/의지/노력’ 등으로 분류되고, 환경적 특성은 ‘한국의 전통문화· 전통재창조’, ‘전통 음식· 음식문화’, ‘공동체의식(우리)’, ‘젓가락문화’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산출물은 예술과 연구개발분야(과학, IT, 기술)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대학생들이 한국의 창의적 특성을 인식할 때 기존의 창의성이론(Rodes의 4P이론)의 분류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창의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한국의 창의적 특성 분류.

둘째, 다른 범주화 목록보다 많은 반응을 보인 ‘연구개발분야(18.6%)’는 성취를 지향하는 동양 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것(Zha, Walczyk, Griffith-Ross, Tobacyk, Walczyk, 2006)으로서 한국의 대학생들도 수·과학 분야의 창의성을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전통문화·전통재창조(온고지신)’, ‘전통음식·다양한 음식문화’, ‘젓가락 문화(3.3%)’, ‘한글(3.1%)’ 등의 범주화 목록과 그것들의 구체적 진술 내용을 보면 한국의 대학생들이 문화적 특성을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고유성 그리고 현대적 활용가능성을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인지적 특성에서의 ‘융통성(5.3%)’, ‘정교성(3.3%)’, ‘독창성(2.9)’ 등의 특성이 많은 빈도수를 보인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창의성에 대한 인식이 명시적인 창의성 이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김혜숙(1998)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지적 특성(17.2%)은 인성적 특성(12.1%)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창의적인 사람의 특성을 성격적인 특성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능력이나 지적인 측면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출물이 실생활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창의성 특성과 관련지어 인식되어 지고 있다. ‘연구개발분야’의 IT분야에서의 인터넷의 발달과 온라인 게임의 활성화와 세계화, 한국적 예술문화에서의 드라마와 영화산업, 전통문화의 활용과 온고지신의 정신 그리고 다양한 음식문화 등은 최근 우리나라의 성장산업 즉, IT, 인터넷, 온라인게임, 한류열풍 등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한국 대학생이 보는 한국의 비창의성

한국의 비창의적 특징을 크게 분류하면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대학생들은 한국의 비창의적 특성을 개인의 심리적 특성(36.7%)보다는 환경적 특성, 즉 사회문화적 배경(44.8%)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환경요인은 다시 동양적 가치관에서 오는 문제와 현재 한국사회의 교육 문제로 구분 할 수 있다. ‘보수주의’, ‘형식·격식·예절강

개인적 특성 (36.6%)	환경적 특성 (44.8%)
고정관념 물개성 모방주의 즉흥적/충동적 배타성 자기주장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통 문화에서 오는 문제 전체강조, 보수주의, 체제순응 2. 현대사회의 구조적 문제 한국적 교육풍토 비창의적 예술 비평등성

[그림 2] 한국의 비창의적 특성 분류.

조’, ‘공동체의식’, ‘비평등성’ 등은 개인보다는 전체를 강조하는 동양 사회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교육풍토(10.5%)’가 비창의적 특성으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한국의 교육풍토를 입시교육, 틀에 박힌 교육, 주입식 교육 등 주로 기존의 학교교육의 문제점으로 부각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둘째, 기존의 것을 고수하려는 ‘고정관념(11.7%)’, ‘물개성(11.2%)’, ‘모방주의(7.66%)’, 신중하지 못하거나 쉽게 포기하는 ‘즉흥적/충동적(3.03%)’, 다른 이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배타성(1.8%)’, 고집이나 자존심이 센 ‘자기주장(1.23%)’ 등을 개인적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러한 특성들 또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비창의적 특성은 한국인들의 개인적 특성 보다는 환경적 특성, 즉 동양의 사회문화적 가치관이나 교육제도와 관련되어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대학생들이 창의성이 발휘되지 못하는 원인을 개인의 자질보다는 사회 문화적 배경이 개인의 창의적 기질을 발휘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창의성의 발휘는 타고난 능력의 문제이기보다는 교육을 중심으로 한 사회문화적 배경이 역기능적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3. 한국 대학생이 보는 미국의 창의성

한국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미국의 창의적 특성은 부분적으로 한국의 창의적 특성과의 비교를 통하여 설명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우므로 아래에서는 양국의 창의적 특성을 비교하여 해석하였다.

첫째, 한국에서는 창의와 비창의적 특징에서 각각 7.4%, 5.0%의 비중을 차지한 ‘예술분야’가 미국의 창의적 특성을 인식하는 데는 13.3%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영화와 드라마 등을 통한 미국 문화의 접근 용이성이 응답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의 대학생들이 창의성 척도로 예술분야 특히, 영화와 미디어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창의성을 측정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교육풍토가 한국에서는 비창의적인 특성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창의적 특성으로 큰 비중(9.0%)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풍토에 대한 진술과는 다르게 미국의 교육풍토는 교수방법의 다양성, 자유로운 분위기, 학생의 흥미와 개성 존중, 선진화된 교육 시스템 등으로 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진술하고 있다. 이는 한국 교육에 대한 불만족과 불신이 간접적으로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음 알 수 있으며, 현재의 교육이 학생들의 창의적 욕구를 다양하게 만족시켜주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미국의 창의적 특성을 인식하는데 ‘개성(12.0%)’의 강조, ‘개인주의(1.8%)’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적 창의성에서는 ‘개성(1.9%)’ 강조가 별로 비중있게 차지하지 못했으며, 반대로 우리라는 ‘공동체의식(4.5%)’이 창의적 특성으로 보여졌다. 따라서 한국의 대학생들이 한국보다는 미국의 창의적 특성에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한국과 미국의 창의성을 구별할 수 있는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Zha 외(2006)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와 창의성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보다 더 창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넷째, 한국과 미국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다. ‘미국의 사회제도’, ‘문화의 다양성’, ‘토론문화’ 등이 창의적 특성을 발휘하는데 유용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보수주의, 형식주의, 집단주의와 연고주의 등이 비창의적 특성으로 인식되어 있다. 이는 교육, 사회 구조, 문화, 정치, 경제 등의 분야에서 한국은 관료적이며 보수적인 경향으로 인식된 반면에 미국은 사회·경제·정치체도를 안정화된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의 사회 체제가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도움을 주는 환경요인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미국의 창의적 요소에 사회문화적 배경이 강조된 점은 한국의 비창의적 요소로 사회문화적 배경이 크게 부각된 것과는 대조된다.

4. 한국 대학생이 보는 미국의 비창의적 특성

한국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미국의 비창의적 특성 또한 한국과의 비교를 통하여 설명한다.

첫째, 한국대학생들이 본 미국의 비창의적 특성은 한국의 비창의적 특성과는 대조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한국의 비창의적 특성에서는 동양적 가치관, 집단주의적 경향이 강조되었던 반면에 미국에서는 서양적 가치관이라고 보여지는 ‘개인주의(11.3%)’ 외에도 ‘민족우월주의(14.5%)’, ‘인종차별(4.9%)’, ‘호전성(4.9%)’, ‘이기주의(4.0%)’ 등이 비창의적인 주요 특성으로 강조되었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특성들은 배타성과 패권주의와 관련되어 생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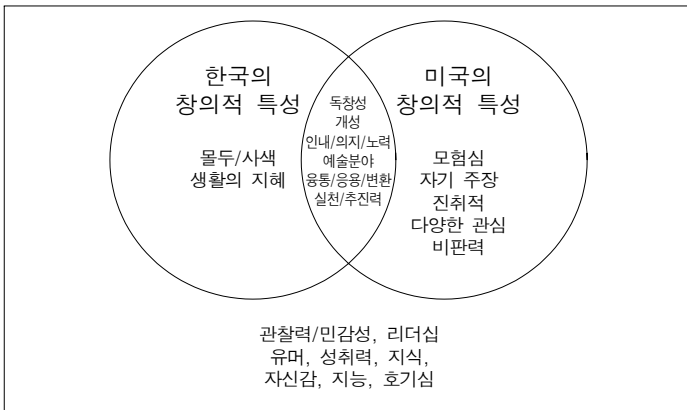
둘째, 그 밖에 미국의 비창의적 특성으로 패스트푸드 음식으로 진술되는 ‘단순한 음식문화’, 실용성과 상업성만을 강조한 단순한 디자인의 의복과 비슷한 패턴의 건물 등으로 진술되는 ‘단순’, 그리고 윤리의식의 부재와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성문화’와 ‘즉흥적/충동적’ 성향, 마지막으로 전통의식의 부재로 오는 ‘예의범절 부족’이나 ‘비전통성’ 등을 볼 수 있다.

5. 한국 대학생이 생각하는 한국의 창의적인 인물과 그 특성

한국 대학생이 생각하는 한국의 창의적 인물은 주로 위인전이나 교과서

에서 언급되던 인물, 세종대왕이나 장영실 또는 이순신 장군 등이 있었으며, 그 외는 현대적인 인물들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앙드레김, 낸시랭과 같은 예술가나 유재석, 노홍철과 같은 개그맨들의 경우가 있다. 이 밖에도 박찬욱, 심형래, 김기덕과 같은 영화감독 등이 포함되었으며 안철수나 황우석과 같은 인기있는 과학자 등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창의적 특성(<표 3> 참조)과 다소 일치하지 않는다. <표 3>에서 ‘연구개발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에 비해서 <표 7>에서는 ‘예술분야’의 인물이 더 많았으며, <표 3>에서 ‘경영방식’은 다소 낮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에 비해서 <표 7>에서 창의적 인물로 ‘CEO’들이 다소 많이 나온 것은 특이할 만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대학생들이 주로 마스크임이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근성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낸시랭이나 유재석, 노홍철과 같은 개그맨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마스크임이나 인터넷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전통문화의 창의적 인물들이 누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그림 3]은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창의적 인물의 특성을 한국의 창의적 특성과 미국의 창의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창의적 인물의 특성에서 양국의 공통적 특성으로 ‘독



[그림 3] 한국의 창의적 인물의 특성을 한국과 미국의 창의적 특성으로 구분함.

창성’, ‘개성’, ‘인내/의지/노력’, ‘예술분야’, ‘융통/응용/변환’, ‘실천/추진력’ 등이 진술되었고, 한국의 창의적 특성으로 ‘몰두/사색’, ‘생활의 지혜’가 진술되었으며, 미국의 창의적 특성으로 기술되었던 ‘모험심’, ‘자기주장’, ‘진취적’, ‘다양한 관심’, ‘비판력’ 등이 진술되었다.

셋째, 한국의 창의적 인물의 특성에서 한국의 창의적 특성(몰두/사색, 생활의 지혜)은 Dunn, Zhang & Ripple(1988)과 Ng(2003) 그리고 Zha 등(2006)의 연구와 같이 사고의 유창성보다는 사고의 유연성이나 융통성을 강조하는 동양 문화권의 창의적 특성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한국의 창의적 인물의 특성은 미국의 창의적 특성(모험심, 자기주장, 진취적, 다양한 관심, 비판력)에서 더 많이 유사성이 보여진다. 즉 한국의 창의적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는 미국의 창의적 특성이 상대적 우위를 점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것은 선발된 창의적 인물들이 매스컴이나 인터넷에서 유명한 사람들이고, 미국문화에 보다 익숙한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전통문화의 창의적인 인물에 대한 발굴노력들을 통해서, 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반증한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인물의 특성에는 주요한 범주로 인식되어 있으나, 양 문화의 창의적 특성에서는 크게 인식되지 않는 ‘모험심’, ‘관찰력/민감성’, ‘유머감각’, ‘리더십’, ‘성취력’ 범주는 다음과 같이 가능성 있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즉, 문제의 제시가 한 문항에서 네 가지 유형(한국의 창의/비창의, 미국의 창의/비창의)으로 답하게 하였기 때문에 피험자들이 양 국가의 창의성을 비교하여 진술하도록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비교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창의적 특징이 누락 되었거나, 또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네 목록은 문화적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범주화 목록일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연구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창의성을 비교하기 위한 선행연구로서 한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과 서양의 암묵적 창의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로 첫째, 한국의 창의적 특성은 인지적 특성, 인성적 특성, 문화적 특성, 연구개발분야, 예술분야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창의성 이론(Rodes의 4P이론)과 비슷한 방식으로 창의성을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특히 한국의 경우, 사회문화적 배경과 같은 환경적 특성은 창의적인 특성, 비창의적 특성 모두에 비중있게 차지하였다. ‘한국의 전통문화·전통재창조’, ‘전통음식·음식문화’, ‘공동체의식(우리)’, ‘젓가락문화’ 등은 한국의 창의적 특성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양적 가치관에서 오는 문제, 예를 들어 보수주의, 형식·격식·예절강조, 공동체의식, 비평등성 등은 비창의적 특성으로 인식되었으며, 또한 한국의 교육풍토가 비창의적 특성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셋째, 미국의 창의성을 인식할 때, 개성의 강조, 자기주장, 진취적 경향 등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미국창의성의 특징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한국적 창의성에서는 개성강조가 별로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공동체의식이 창의적 특성으로 보여진 것은 한국의 창의성과 미국의 창의성을 구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한국과 미국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다. 대체적으로 미국의 창의적 요소에 미국의 사회제도, 문화의 다양성, 토론문화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배경이 강조되고 있으며, 한국의 비창의적 요소로 보수주의, 형식주의, 집단주의, 연고주의와 같은 사회문화적 배경이 크게 부각된 것은 대조적이다. 미국의 문화가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많은 부분 일치하는 경향으로 보여 진다.

다섯째, 그러나 한국의 대학생들이 무분별하게 미국문화를 더 창의적인 환경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한국의 문화를 문화의 고유성과 우수성 그리고 현대적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창의적 특성으로 인식하려 하였고, 미국 문화의 자기중심적인 경향과 미국중심의 사상 그리고 인종차별과 같은 비평등성에 대해서는 비창의적 요소로 구분 짓고 있다. 따

라서 한국 문화가 가지는 정신문화와 전통성 그리고 문화유산에 대한 좀 더 세분화된 접근 방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여섯째, 한국의 창의적 인물로는 세종대왕이나 장영실, 이순신 장군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현대적 인물들이었으며, 매스컴이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근성이 높은 인물들이 많았다. 이는 다양한 매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대학생집단의 특징인 것으로 해석되어졌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인물들의 창의적 특성들은 한국의 창의적 특성보다는 미국의 창의적 특성과 더 유사하였으며, 이는 미국문화에 보다 익숙한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어졌다. 앞으로 전통문화 부분의 창의적 인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비교문화적 창의성 연구에서 대체적으로 동양이 서양에 비해 불리한 문화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보고들에 대하여, 동양적 창의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통문화와 전통채창조, 전통음식과 다양한 음식 문화, 동양적 가치관인 공동체 의식 등이 창의적 특성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서양에는 없는 우수한 문화자원이며 창의성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과 미국의 암묵적 창의적 특성과 비창의적 특성을 연구한 것으로 비교문화적 연구라고 하기에는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연구의 목적에서 전술 하였듯이 대부분의 연구에서 자국과 미국을 비교대상으로 하여 문화적 특성에 따라 창의성의 특징을 연구하였으나, 미국이 서양 문화권을 대표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차후 연구에 있어 다양한 나라와의 비교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표집 과정에서 설문 응답자의 남녀비율이 3 : 7로 여성의 응답자 수가 월등히 많았으므로 해석에 있어 성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암묵적인 창의성에 대한 조사 연구이기 때문에 암묵적 이론 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조사 대상인 한국의 대학생들의 암묵적 이론에 대한 의견의 일치가 문화적, 자연적으로 제한된 성격을 지닐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 미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과 미국의 암묵적 창의적 특성과 비창의적 특성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참 고 문 헌

- 김혜숙 (1998). **다원적 접근에 기초한 창의성 진단 측정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병기 · 강현숙 (2006). 한국 창의성 조망. **교육심리연구**, 21(1), 233-264.
- 박용현 (1967). 창조를 위한 인간교육: 창의성의 기원과 그 교육방안. **교육학연구**, 5(2), 15-24.
- 성은현 (2004). 어머니의 내외통제성과 창의적 가정환경 및 창의적 인성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3), 79-93.
- 성은현 (2006). **문화와 창의성**. 인하대학교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 - 아시아 교육의 기적-가정, 학교 그리고 문화적 맥락에서의 아동 발달. 2006.10.28.
- 송인섭, 김혜숙 (1999). 창의성 개념정립을 위한 탐색적 연구-암시적 창의성 이론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3(3), 93-117.
- Amabile, T. M. (1996). *Creativity in context*. Westview Press.
- Csikszentmihalyi, M. (1999). Implications of a systems perspectives for the study of creativity. In Sternberg, R. J. (Ed.), *Handbook of creativ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unn, J. A., Zhang, X. Y., & Ripple, R. E. (1988). Comparative study of Chinese and American performance on divergent thinking tasks. *New Horizons*, 29, 7-20
- Feldman, D. H. (1999), The Development of Creativity. in Sternberg, R. J., *Handbook of creativ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ellen, H. U. & Urban, K. (1989). Assessing creative potential Worldwide: The first cross-cultural application of the test for creative thinking-drawing production (TCT-DT). *Gifted Education*, 6(2), 78-86.
- Kim, K. H. (2005). Learning From Each Other: Creativity in East Asian and American Education. *Creative Research Journal*, 17(3).
- Ng, A. K. (2003). A Cultural Model of Creative and Conforming Behavior. *Creativity Research Journal*, 15(2-3), 223-233.
- Pornrungri, C. (1992). A comparison of creativity test score between Thai children in a Thai culture and Thai-American children who were born and reared in an American cultu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llinois State University. Normal.
- Rudowicz, E., & Yue, X.D. (2002). Compatibility of Chinese and Creative Personalities.

- Creativity Research Journal*, 14(3-4). 387-394.
- Rudowicz, E., Lok, D., & Kitto, J. (1995). Use of the Torrance Test of Creative Thinking in an exploratory study of creativity in Hong Kong primary school children: A cross-cultural comparison. *Journal of Psychology*, 30. 417-430.
- Runco, M. A., & Johnson, D. J. (2002). Parents' and Teachers' Implicit Theories of Children's Creativity: A Cross-Cultural Perspective. *Creativity Research Journal*, 14 (3-4). 427-438.
- Sternberg, R. J., & Lubart, T. I. (1996). Investing in Creativity. *American Psychologist*, 51(7). 677-688
- Sternberg, R. J., & Lubart, T. I. (1999). The concept of creativity: Prospects and paradigms. In Sternberg, R. J. (Ed.), *Handbook of Creativ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remikis, B. A. (2002).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circumstances of successful women musicians. *Creativity Research Journal*, 14(1). 85-92.
- Zha, P., Walczyk J. J., Griffith-Ross, D. A., Tobacyk, J. J., & Walczyk, D. F. (2006). The Impact of Culture and Individualism - Collectivism on the Creative Potential and Achievement of American and Chinese Adults. *Creativity Research Journal*, 18(3). 355-366.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Implicit Creativity of Korea and America Recognized by Korean University Students

En Hyun, Sung

Professor of Hoseo University

Hyung Seon, Ryu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Joo Hyun, Ha

Professor of Konyang University

Jeong Kyu, Lee

Research Director of KEDI

Soon Mi, Han

Research Professor of Catholic University

Yun Yung, Han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an's University

As a previous study to investigate recognition gap of creativity between Korea and America, this study has examined Korean university students' implicit creativity toward Korea and America. The research method using in this study was as follows: The subject were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and they were asked to answer multiply for open-ended questions. For the analysis of the answers, a frequency analysis was us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It showed that Korean university students considered creativity trait as cognitive trait, personality, cultural trait, research and development areas and arts areas. This result means that Korean university students tend to recognize creativity similarly to the

ways of established theories of creativity. 2) For the case of Korea, environmental trait like sociocultural background had great importance for all cases of creativity trait and non-creativity trait. 3) American creativity was recognized focused on individual tendency, on the while, community spirit was considered as creativity trait in Korean creativity. 4) It is considered that American culture had better condition for displaying creativity than Korean culture. 5) Traditional culture of Korea was recognized as creativity trait in terms of originality and superiority, and the possibility of modernistic use of Korean culture. 6) Creative people were ranked by artists, executives, rulers and scientists who were well-known to Korean university students. 7) In the comparison of creativity trait between the two countries revealed the traits of creative people, American creativity was reflected more than Korean creativity, This result seems that those people were favored by Korean university students who were familiar with American culture. In conclusion, this study has found another possibility of creativity of the East among cross-cultural creativity studies. Moreover, this study has suggested that traditional culture and tradition renewal, and values of the East are superior cultural resources which are not exist in the West, and those are expected to play a role in developing creativity.

Key words: Implicit creativity, Korean creativity, American creativity, cross-culture

1차 원고접수: 2007년 7월 18일 수정원고접수: 2007년 8월 21일 최종게재결정: 2007년 8월 22일
